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21년 사업감사 의견서

- 감사일시 : 2022년 1월 13일(수) 13:30 ~ 15:30
- 감사장소 :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실
- 감사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오경숙 감사
- 피 감사자 : 이성우 사무처장, 박현아 총무부장

감사의견

환경문제는 2050 탄소중립, ESG 경영 등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와 기업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에, 실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규정과 대중적 관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2021년은 SK하이닉스 LNG 발전소와 북이면 소각장 대응활동, 산업폐기물 관련 활동 등 환경 현안에 적극 대응해 왔고,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탄소중립 의지를 이끌어 내는 등 쟁점을 부각하고 문제의식을 확산하는 환경단체 본연의 활동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나아가 2022년 충북에서 실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조례 등 선거 시기 대안 제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은 구성원들을 더욱 개별화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전사회적으로 환경 이슈는 부각 되었지만, 핵심 실천 단위인 회원간 연대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진행한 후원행사, 다양한 시민단체 및 시민과 함께하는 ‘플로깅’과 ‘하천을 부탁해’ 등 일상의 실천 활동을 통해 연대를 확인하고 재조직화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21년 공익단체로서 법적지위가 변경되면서 실무적 변화뿐 아니라, 단체활동 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회원구성도 점점 더 다양화되고 조직 활동에 대한 인식 편차도 커질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인식 차이를 새로운 활동 기반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와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는 조직 문화 이해 교육이나 부모와 자녀 통합 프로그램 등 구성원들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재조직화할 수 있다면 그만큼 환경운동연합의 저변이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함께 길을 찾는 2022년이 되길 기대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감사 오 경 숙 